

01 교회소식

만민뉴스가 좋아요~

지난 26년간 만민뉴스를 통해 전 세계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5

엘리아의 선 (1)

엘리아는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며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다.

03 기획특집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없애야 할 흠, 점, 티, 주름 잡힌 것의 영적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04 간증

위엿 것을 바라보며 ...

전신 무7력증을 치료받고 온 가족이 축성하는 광주만민교회 오영님 권사와 생명의 말씀에 행복하다는 팔도핀 조세민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582호 2013년 5월 1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영적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멘토!”

29개 언어로 발간되는 「만민뉴스」 창간 26주년 맞아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여러 문자 중에 사용 인구 수가 많은 주요 언어, 곧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불어를 포함해 29개 언어로 발간되는 다국어 「만민뉴스」. 세계 주요 언어 지도를 뒤덮은 다국어 「만민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더욱 양질의 콘텐츠와 다양한 언어로 발간할 것이다.

한국어로 매주 발간하는 「만민뉴스」가 창간 26주년을 맞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성도들의 응답·치료·축복 간증은 물론, 신앙생활에 활력을 더해 주는 기획 특집 기사와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17일 '만민중앙소식'으로 창간돼 월간으로 발행하다가 1991년 10월부터 격주로 발간했다. 1991년 1월에는 영어판을 필두로 해외선교를 위한 다국어 신문 발간을 시작했다.

국내에 전하는 소식지 차원을 넘어 전 세계 해외 성도들을 위한 선교지로 성장했고, 2009년 10월에는 「만민뉴스」로 제호를 변

경, 매주 인터넷과 종이신문으로 동시 발간해 문서선교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2013년 5월 현재, 한국어를 비롯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스페인어, 아랍어, 힌디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불어, 독일어, 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우크라이나어, 히브리어, 네팔어, 우르두어, 타밀어, 싱할라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따갈로그어, 비사야어 29개 언어로 발간하고 있다.

이에 「만민뉴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몽골의 다와수렌 집사는 “「만민뉴스」를 통해 지난날 고민하던 문제들의 해답을 얻었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콜롬비아의 즐란다 란체로스 성도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천국 소망을 더해 주며, 하나님 권능을 통해 이뤄지는 세계 선교 소식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리아의 키릴 스빌레노브 박사는 “불가리아어 「만민뉴스」 발간은 위대한 사역이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리나 다박 히브리어 번역자는 “「만민뉴스」는 생명력으로 가득차 있다. 설교를 통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비결들을 배우고 있다. 아들이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 역사를 체험했기에 「만민뉴스」에 실린 간증은 더욱 감동이 된다.”라고 말했다.

「만민뉴스」는 전국 및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전달돼 신앙성장과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를 통해 29개 언어로 제작된 「만민뉴스」를 볼 수 있으며, 선교 현지에서는 필요한 언어의 『인쇄용 PDF』를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창간 26주년을 맞아 「만민뉴스」는 더 많은 언어로 발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계 교구화의 첨병이 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열왕기하 2:11)

엘리아의 선 (1)

한 마음을 가졌기에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고 화평을 깨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육으로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으나 영으로 변화된다면 큰 선지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됐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아의 이러한 마음의 선을 크게 사시고 연단을 통해 큰 선지자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전 육적으로 매우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연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연단을 통해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심히도 유약하고 자존심이나 들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약함이 영으로 변화돼야 큰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에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군사적, 상업적 동맹을 유지하고자 바알을 섬기는 이방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들 아합과 정략 결혼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신이 북이스라엘에 퍼져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컸던지 심판이 임하지요. 바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라고 엘리아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꺼녕 오히려 엘리아를 잡아 죽이려 하지요.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 왕을 다시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엘리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유약한 엘리아가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

나 엘리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아가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대결을 위해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달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까지 하지요(왕상 18:19).

2.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엘리아가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를 힘썼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깨닫고자 했지요.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아는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 권능을 더욱 사모하게 됐고,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능히 된다’는 믿음이 확고해졌지요. 그렇다고 단번에 유약함이 벗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니 결국은 하나님 능력으로 강함이 임해졌지요.

연단을 받은 후 엘리아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육의 한계 속에 있는 자신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육의 공간에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왕상 18:46).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낼 사람을 쓰시지요. 왜냐하면 사

람의 마음을 그릇이라 할 때 그릇 안에 ‘자기가 많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많이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 해도 그릇 안에 담긴 ‘자기’와 섞여서 순수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자기가 온전히 비워진 깨끗한 그릇, 마음이 겸비한 그릇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비워진 깨끗한 그릇이라 해도 바닥이 깊은 그릇이 많이 담기듯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 능력이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중심에서 고백했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또한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고 사람들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서로 부딪치고 불편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키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진리 말씀으로 죄와 의에 대해서 밝히 분별하되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상대를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설령 나 보기에 의롭지 못한 상대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사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비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엘리아는 B.C. 9세기경 우상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담대히 하나님 뜻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850인과 대결해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간절한 기도로서 3년 반 동안 가뭄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르밧 과부로부터 떡 한 조각을 공께받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었으며,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도 했지요. 또한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앞일에 대해 밝히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지요.

과연 엘리아 선지자는 어떠한 선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1.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마음

엘리아는 원래 매우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겸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때부터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신부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성도들의 천국 집을 예비하신 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5:26~27)

정녕 거룩하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며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

만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행패
를 부린다는가,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다든
가,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
가락질할 것이다.
이처럼 ‘흠’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잘못
된 부분을 말한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
위적인 모습에서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

점이 없어야 한다

‘점’은 마음의 죄성과 그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가령 얼굴
에 있는 점을 뺨 뒤에도 햇볕을 그대로 쬐면
다시 점이 생길 수 있듯이 세상을 접하면 죄

티가 없어야 한다

‘티’는 사소하지만 굳이 찾으려 하면 찾을
수 있는 육체의 결여를 말한다. 먼저 성품이
나 기질적인 면에서 생긴 결여가 있다. 만일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

‘주름’은 진리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곧 선의 틀, 진리의 틀을 말한다. 만일 사
장이 직원교육 후 회식을 하면 좋겠다고 의
향을 비칠 때 상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회식이라뇨. 괜찮습
니다.” 하며 사양하거나 사장이 “등심이
든 갈비든 마음껏 드세요.”라고 하는데 상
무가 “갈비탕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그
렇죠?” 한다면 어떻게겠는가? 자신은 나름대

들이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옛 사
람의 구습을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흠’이란 이전에 상처 난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
님뿐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도 현저하게 악
을 행한 경우에는 주님을 영접해 회개한 후
라도 흔적으로 남게 된다. 또한 주님을 영접
한 후 육체의 일(갈 5:19~21)을 행한 경우에
는 철저히 통회자복했다 해도 흉터처럼 남

성이 다시 올라오게 된다. 죄를 통회자복했
다 해도 근본 뿌리인 죄성을 온전히 뽑아버
리지 않으면 다시 세상을 접할 때 번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지 죄성을 버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죄성을 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
저 거짓, 간사함, 미움, 시기, 질투, 간음 등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교만이
나 들림의 속성을 버렸다 해도 그의 적극적
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또한 성장하면서 체험이나 경험의 부족으
로 생긴 결여가 있다. 가령 진리 안에서 세

로 선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사장의 깊
은 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회식을 통해 열심낼 수 있다는 사
실을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
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가로막기도
한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선의 한계가 오히
려 축복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선의 차
원,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는 바로 이러한 선의 틀도 깨뜨려야 한다.

또한 살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

게 된다. 이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이런
경우 남들보다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부족한 부분을 ‘흠’이라 한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행하
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거쳤거나 건너뛰었을 경우에
육체의 결여로 남는다. 이 육체의 결여는 자
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진리로 보고
듣고 느끼며 행해 나갈 때 채워진다.

명백히 드러나는 악을 버려야 한다.
그다음 내가 옳다고 만들어 놓은 양심의
악을 버려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과 맞
지 않은 부분들은 무조건 발견해 버려야 한
다. 또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본성 속의 악
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해
버릴 수 있다.

상을 접하지 않고 영의 마음을 이룬 사람은
육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
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판단
거리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없애야 온전하다 할 수 있다.

진 육의 흔적이 있다. 내성적이고 온화한 성
품의 사람은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아 사람
들이 ‘왜 그럴까!’ 할 수 있다. 이런 분야도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온 영으로 들어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에 맞게 부드럽
고 섬세하게 승화시켜 사용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
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대로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 5. 19~5. 25

5 May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선 15-17 • 사랑 1-2
- 생명의 씨 3-4
- 마음발을 개간하자 1-3
- 일곱교회 19-23
- 창세기 강해 84-88
- 천국 48-50 • 순전 1-2

GCN TV설교

- 육과 영 5-9 (아수진 목사)
- 더 신속히 변화되는 방법 1-2 (아수진 목사)
- 언약계 2 (정구영 목사)
- 기쁨 중에 변화 (김수정 목사)
- GCN TV특강 - 일곱교회 7-8 (빈교선 권사)
- 십자가의 도 1-3 (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13, 17-19, 21
- GCN 간중 스페셜 16-19

해외성회 시리즈

- 필리핀연합대성회 2
- 독일연합대성회-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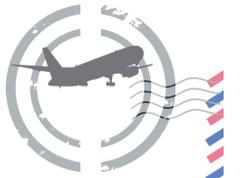
- GCN 파워프레이즈[2] 9-13
- 찬양과 경배 [3] 40-45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4

NEW 프로그램

- <성경통독 프로그램> 마음의 양식 3-4

Global Christian Network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1992년 2월, 첫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삶에 대한 의욕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신 무기력증으로 고생해야 했지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보증 선 것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 남편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던 기나긴 밤들, 남편에게 짐이 될까봐 묵묵히 견디며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처절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눈물 흘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전신 무기력증을 치료해 주시고

1999년 4월 말, 불행의 긴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집 앞에 한 장의 소식이자 꽃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알리는 「만민뉴스」였습니다.

이 성회를 광주만민교회(담임 박형열 목사)에서도 화상(畫像)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에 '나도 가서 은혜받고 치료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지요.

광주만민교회 상담전화로 연결된 허정 장로님은 제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믿음의 5단계' 15편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 오셨습니다. 밤새 듣고 또 들었지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에 몰입듯 감동함이 밀려왔습니다.

그해 5월, 드디어 부흥성회에 참석했습니다.

불치 난치병들이 치료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목발을 버리며 걷고 뛰는 권능의 역사들은 너무나 놀라웠지요. 감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동안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자 복용하던 약을 끊었습니다.

부흥성회 첫날부터 저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찬만했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희열이 넘쳤지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겁던 몸도 솜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 무기력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역장로서 영혼들을 갈무리하며 충성하고 있지요.

남편을 변화시켜 축복해 주신 하나님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를 체험한 후 저희 가족은 광주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딸의 중이염과 아토피성 피부염도 치료해 주셨고, 무엇보다 남편 서중수 집사님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강이 회복된 것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려 나갔지요. 즐기던 술과 화투도 미련 없이 끊어 버렸습니다. 또한 성격이

불같고 가부장적이었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온화한 성품으로 바뀌었지요.

더욱이 감사한 일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십일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GCN 방송 선교헌금을 꾸준히 심고, 광주만민교회 새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께 힘껏 헌물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이런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축복의 물꼬를 터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차장 승진과 동시에 전남지역 본부에서 본사(경기도 의왕시 소재)로 발령받았습니다. 또 물질 축복과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수상, 일본 연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업정책과정 수료 시 우수논문상 수상 등 예기치 않은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한

국폴리텍대학 김제 캠퍼스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교회에서는 재정부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팔 서명희 자매는 청년선교회 회장과 글로리아중창단으로, 둘째딸 서인에 자매는 고등부 선교회장과 백향목찬양울동단으로, 셋째딸 서지에 자매는 백향목찬양울동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팔은 폐농양을 믿음으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전신 무기력증으로 삶의 의욕이 없던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 주시고, 가족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삶을 바꿔 준 한 장의 「만민뉴스」 감사해요

오영님 권사 (광주만민교회)



필리핀에서 오 편지

“당회장님 신앙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조세핀 빈루안 크라미 성도 (필리핀 다바오만민교회)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저는 결혼 후 중동에 있는 한 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어서 많은 신앙의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를 극복하고 26년간 근속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요. 퇴직 후에는 필리핀 다바오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성탄절, 김은자 선교사님이 조카 알버트 형제를 심방하기 위해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카는 대문에 꽃혀 있던 「만민뉴스」에서 설교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아 다바오만민교회(담임 김은자 선교사)에 출석하고 있었지요.

그날 선교사님은 계간지 「만민투데이」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실려 있어 흥미로웠지요. 또한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았고, 책들은 제 신앙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 마음을 닦기 위해 힘쓰니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뜨거워졌지요. 이에 영국에 있는 아들들, 필리핀과 중동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책들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신앙상담을 해올 때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지요.

저는 요즈음 이 귀한 말씀을 필리핀 영혼들에게 전해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비전으로 찬만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0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의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2278-0641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흥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영랑동 163-64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